2009년 10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324조회)

아버지의 배려
父の思いやり

아버지의 사랑은
父の愛は、

소리 없는 배려였다.
声なき思いやりだ。

교양이란 타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教養という、他者に対する思いやりだろう。

타자를 이해하는 배려가 아니라, 타자를 인정하는
他者を理解する思いやりではなく、他者を認める

배려일 것이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손과 발에 생각을
思いやりだろう。考えに留まらず、手や足に考えを

담는 힘이 교양일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こめる力が教養だろう。私が父を恨みながらも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삶의 순간순간마다 소리 없이
愛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人生の瞬間のたびに声なく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곡진한 사랑 때문이었다.
見せてくれた父の詳らかな愛のためだ。

- 이철환의《눈물은 힘이 세다》중에서 -
- イ・チョルファンの＜涙は力が強い＞より -

* 많은 사람의 경우,
* 多くの人の場合

아마도 인생 최고의 배려는
多分人生の最高の思いやりは

아버지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父から経験する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저의 삶에서도 저 멀리 유년시절로부터 순간순간마다
私の人生でも、あの遠い幼少時代から、瞬間のたび

아버지의 그 속깊은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 삶의 자리도
父のその深い思いやりがなかったら、今日、私の人生の場所も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자란 아들,
なかっただろう。父の認定を受けそだった息子、

아버지의 한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은
父のかぎり愛を受け、そだった娘は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決して滅びることがありません。

교:양 [教養]
[명사·하다형 자동사] 教養。
머물다
[자동사] '머무르다'の縮約形。
머무르다
<1>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止まる;停止する;停泊する。
<2>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一定の所に)とどまる;居残る。
담:다
<1> [타동사] (器に)盛る;よそう;入れる。
<2> [타동사] (うわさ, 悪口などを)口にする;口に出す;話題にする。
원:망 [怨望]
[명사·하다형 타동사] 怨望;恨み。
<1> [명사·하다형 타동사] うらみに思うこと;恨むこと。
곡진 [曲盡]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誠を尽くすこと。
<2> [명사·하다형 형용사] 詳らかでねんごろなこと。
유년 [幼年]
[명사] 幼年。
시절 [時節]
[명사] 時節。
<1> [명사] 時候;季節。
망-하다1 [亡—]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個人·家庭·組織などが)滅びる;滅亡する;つぶれる。

2009년 10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1,216조회)

친밀함
親密感

나는 타인과의 친밀함을 좋아한다.
私は他人との親密感が好きだ。

그것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그 동안의
それを通じて、私を発見し、その間の

말 못할 상처들로부터 해방되고, 나 또한 누군가의
言葉にできない傷から開放され、私もまた、誰かの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친밀함.
治癒者になることもできる希望をもたらしてくれる親密感。

비록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라도 또 다른
たとえ傷を与えた人が、まさにあなたどしても、また、他の

누군가가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은
誰かがその傷を治癒し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信頼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서부터
人と人の間の"親密感"から

오는 것이다.
やってくるだろう。

- 곽효정의《페페의 필름통》중에서 -
- クワク・ヒョジョンの＜ペペのフィルム筒＞より -

* '친밀함'도 격(格)이 있습니다.
* **'親身感'も格が有ります。**

겉으로만 나타나는 표면적 친밀함과
表だけあらわれる表面的親密感と

진심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적 친밀함,
偽りのないの心から、湧き出る内面的親密感

어쩌다 한 번 스치듯 보여주는 일시적 친밀함과
思いがけなく一度かすめるように見せてくれる、一時的親密感と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 계속되는 항시적 친밀함.
2回、3回、10回、100回と継続する常時的親密感

그 격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その格が違います。人と人の間の関係と

치유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治癒の効果も変わります。

겉
[명사] **表;表面;上べ。**
나타-나다

<1> [자동사] 現われる;出る;出てくる;見えてくる;出現する。
<2> [자동사] 見える;現われる;浮かぶ;暴かれる。
진심 [眞心]
[명사] 真心；いつわりのない心。
우러-나오다
<1> [자동사] (考えや感じなどが)心から湧き出る;浮び上がる。
<2> [자동사] (涙·声などが)自然に湧きおこる;湧き出る。
어쩌다
[부사] '어쩌다가'の縮約形。
어쩌다가
<1> [부사] 偶然に;思いがけなく。
<2> [부사] ときおり;たまに;時に。
軒をかす·める燕　→ かす·める
처마를 스치듯 날아가는 제비.
항시 [恒時]
<1> [부사] 常に;いつも。
<2> [부사] (名詞的に)常時;通常。〔동의어〕늘

2009년 10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1,279조회)

재미있는 사람
楽しい人

21세기에는
21世紀には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하다.
'今'幸せな人が'後にも'幸せだ。

지금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재미있게
今生きていることが、楽しい人が、後にも楽しく

살 수 있다. 21세기의 핵심가치는 '재미'다.
生きることができる。21世紀の核心価値は'楽しさ'だ

창의적 지식은 재미있을 때만 생겨난다.
創意的知識は、楽しいときだけ生じる。

그래서 재미와 창의성은 심리학적으로
それで、楽しさと創意性は心理学的に

동의어다.
同意語だ。

- 김정운의《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중에서 -
- キム・ジョンウンの＜私は妻との結婚を後悔する＞より -

* '현재진행형'이 중요합니다.
* '現在進行形'が重要です。

지금 재미없는 사람이 나중에 재미있기 힘들고,
今楽しくない人が、後に楽しい(くなる)のは大変で

오늘 창의성이 없으면서 내일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今日の創意性がなく、明日の創意性を期待するのは難しいです。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고통의 길을 갈 수 있지만
明日の幸せのために、今日の苦痛の道を行くこともできるが

그 고통의 길에서조차 재미와 창의성을
その苦痛の道からでさえ、楽しさと創意性を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探し出す人が、本当の幸せな人。

진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本当に楽しい人だ。

창:의 [創意·刱意]
[명사·하다형 자동사] 創意;新しい思いつき。

2009년 10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2,274조회)

비지니스의 핵심
ビジネスの核心

비지니스의 핵심은 일이 아닌 사람이다.
ビジネスの核心は、仕事ではなく人だ。

기업의 핵심은 기술과 자금일까. 그렇지 않다.
企業の核心は、技術と資金だろうか？そうではない。

기업의 핵심은 돈도 기술도 아닌, 바로 사람이다.
企業の核心は、金も技術でもない、まさに人だ。

그것도 철학과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과
それも、哲学と熱情があふれ、自信感と

비전으로 똘똘 뭉친 인재들이
ビジョンで、一致団結した人材たちが

넘쳐나야 한다.
あふれなければならない。

- 조서환의《모티베이터》중에서 -
- チョ・ソファンの＜モチベイト＞より -

* 비지니스의 핵심이 사람이라면
* ビジネスの核心が、人ならば

사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人の核心は、何でしょうか？心で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人の心を動かせば、人を得ることができ

사람을 얻으면 돈과 기술도 따라옵니다.
人を得れば、お金も技術もついてきます。

비지니스도 잘 자라납니다.
ビジネスも、よく育っていきます。

마음이 핵심입니다.
心が核心です。

넘:치다
<1> [자동사] あふれる;満ちあふれる;みなぎる;氾濫する;こぼれる。
<2> [자동사] 過ぎる;余る。
똘똘
<1> [부사] 軽く幾重にも物を巻くさま:くるくる;ぐるぐる。
<2> [부사] 丸く小さいものが軽く転がるさま:ころころ。
뭉치다1
<1> [자동사] ひとかたまりになる;凝る;凝固する;固まる。
<2> [자동사] 団結する。

2009년 10월 16일 보낸 편지입니다.(1,550조회)

이별 능력
別れの能力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잠시 떨어질 때
子供が母からすこし離れるとき

이별의 인사말이라든지 손을 흔들어 전송하는 등
別れの挨拶とか、手を振って送るなど

유대감의 표시를 하는 것은 아이의 이별 능력을 키우는 데
紐帯感の表示をすことは、子供の別れの能力を養うときの

도움이 된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이별 동작들은
役に立つ。このような非言語的離別の動作は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겪는 이별의 의례에도
後に成人になって、経験する別れの儀礼にも

자주 나타난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よくあらわれる。旅行をする人を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長い間、手をふりながら

전송하는 식으로.
送る式で

- 요하나 뮐러-에베르트의《이별 능력》중에서 -
- ヨハンナ・ミュラー＝エベルトの＜別れの能力＞より -

* 이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別れを知らない子供たちが、増えています。

엄마와 떨어지면 큰일나는 줄 알고 어쩔 줄 모릅니다.
ママと別れれば、大事になるとおもって、どうするかも分かりません。

나이든 성인들도 이별로 비롯된 상처가 큽니다.
歳をとった成人たちも別れで始まった傷が大きいです。

그러나 인생은 이별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しかし人生は、別れと出会いの連続です。

이별을 아름답게 잘 할 줄 알아야
別れを美しくすることができてこそ

다시 아름답게 만날 수 있습니다.
また美しく会うことができます。

이별도 능력입니다.
別れも能力です。

큰 훈련입니다.
大きい訓練です。

전송 [傳送]
[명사·하다형 타동사] 伝送;次々に送り伝えること。
유대 [紐帶]
[명사] 紐帯;幾つかのものを結びつける大切なもの。
키우다
<1> [타동사] 育てる;育む;飼う。
<2> [타동사] (才能·体力などを)養う。
의례 [儀禮]
[명사] 儀礼;形式を備えた礼儀。
전송 [傳送]
[명사·하다형 타동사] 伝送;次々に送り伝えること。
비롯-하다
<1> [자동사]{타동사·여 불규칙활용} (その時から)始まる。
<2> [자동사]{타동사·여 불규칙활용} (多くの中で)最初となる;初めとする。

요하나 뮐러
Johanna Muller-Ebert
ヨハンナ・ミュラー＝エベルト

비언어적わからんやったよ
ネイバーで調べたら「飛言魚炙」・・・なに？でさらに検索したら
「コミュニケーション: ボディーランゲージの非言語的な芸術的な表現形式」
「커뮤니케이션: 신체 언어의 비언어적인 예술적 표현 방식 이해 [ko]」
というのを発見して納得。
http://ja.webcafepro.com/communication_understanding_the_non-verbal_art_form_of_body_language180451a.html

2009년 10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644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영숙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イ・ヨンソ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좋은 사람
いい人

영국 중세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英国中世文学の最高権威者であり

유명한 석학이었던 매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有名な碩学であったマックレイン先生は、答辞で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涙までうかべながら'いい人'という言葉は、自身が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今まで聞いたそのどの賛辞より、さらに貴く重要なことばだと

했다. 아직 이십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いった。まだ、20台だった私はそのとき'いい人'の意味には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特に関心が無かった。いや'いい人'は特徴なく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つまらない人と考えた。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しかし、年月がたくさん流れた今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私は、今更'いい人'について思う。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そして、本当に誰の心にも'いい人'で残ることが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どれだけ大変で、大切なのか気づき始めた。

- 장영희의《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중에서 -
- チャン・ヨンヒの＜生きてきた奇跡生きていく奇跡＞より -

* 이 글귀를 읽으면서
* この文句を読みながら

저도 저자처럼 '좋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私も、著者のように'いい人'について考えて見ます。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近くにいる人が、本当に彼を'いい人'だと

말해 준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이고
言ってくれれば、その人の人生はすでに成功したことであり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むなしい人生ではないだろう。

좋은 글 주신 이영숙님께
いい文章を下さったキム・ユノク様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석학 [碩學]
[명사] 碩学;学問が広く深いこと, またその人。
답사 [答辭]
[명사] 答辞。
<1> [명사] <하다형 자동사>返答の言葉。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 글썽-하다
目に涙をいっぱいうかべている。
이제-껏
[부사] 今まで;今に至るまで。〔동의어〕여태까지
찬:사 [讚辭]
[명사] 賛辞;賞賛のことば, またその文。
값-지다
[형용사] 値打ちがある;値がはる;高価だ;貴重だ;貴い;高級だ。
특징 [特徵]
<1> [명사] 特徴。
<2> [명사] <하다형 타동사>むかし, 官職を与えるために王が臣下を呼び出したこと。
이ま-さら [今更]
1. [부사] 새삼스럽게. 이제 새삼.
2. [부사] 〈흔히 부정·의문·반어 등의 말이 이어짐〉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글-귀 [←─句]
[명사] 文句;文章;文言。
저:자 [著者]
[명사] 著者 ; 書物を書いた人;著作者;著述者。
헛-되다
<1> [형용사] むなしい;甲斐がない;無駄である。
<2> [형용사] でたらめで信じられない。